

日本電子企業에 있어서 韓國據點과 臺灣據點의 차이

김 종 걸

본 연구는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과 대만에 진출한 거점이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현재 일본 전자기업의 한국투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 대만투자는 여전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거점이 아세안·중국 거점에 대한 부품공급기지로서 그 성격을 점차 강화시켜가고 있다는 것, 반대로 한국거점은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어 일본의 생산기지로서의 의미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만에 있어서 외자계기업(특히 민생용기기의 일본기업)의 생산점유율은 한국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 민생용 전자기기를 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조건도 일본—한국을 제외한 NIEs(특히 대만)—아세안 연합체와 한국과의 경쟁이라는 구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I. 서 론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日本企業의 海外進出은 東아시아에 있어서 기존 일본기업의 분업 네트워크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기술, 시설재, 부품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단순조립 생산하던 구도는 일본—NIEs—아세안·중국을 연결시키는 보다 重層的인 분업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형성·확대되고 있는 일본 전자기업의 동아시아 국제분업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거점은 아시아 각 거점의 생산 및 판매계획을 총괄하며 기술, 기계설비, 중요부품을 공급한다. 다음으로 NIEs거점은 아세안·중국거점에 대해 일부 전자부품을 공급하며 저가품의 설계, 지역통팔 및 국제조달·배급거점으로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및 NIEs거점으로부터 기술, 기계, 중요부품 등을 공급받은 아세안거점은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을 지향하는 수출생산거점으로, 그리고 중국거점은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조립생산거점으로 확대된다.

이상과 같은 일본기업의 국제분업 네트워크에 관한 실태조사는 현재 일본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靑木健 [31], 日本長銀總合研究所 [25], [26], [27], 拙稿 [13]).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日本通産省이 3년마다 실시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를 이용하든, 아니면 현지 앙케트 조사를 이용하든, 한국과 대만을 같은 NIEs 범주 속에서만 분석하고 있어 한국거점과 대만거점의 차이점은 전혀 분석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과 대만은 1970년대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외자기업이 그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 나라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자신의 국제분업 과정 속에서 양국거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비교검토한 논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척 이상한 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 속에 한국과 대만 거점이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특히 대만에 있는 일본기업의 거점들이 아세안·중국 거점에 대한 부품공급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그 중요성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거점은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어 급속히 일본의 생산기지로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해외현지법인 실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폭넓은 조사자료인 通産省의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와 日本電子機械工業會의 「海外法人 리스트」, 그리고 필자의 현지 실태조사결과에 의거하면서 살펴볼 것이다.¹⁾

본 연구에서 검토할 두 번째 과제는 현재 전자산업 특히 민생용기기 부문에 있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경쟁상황이 일본—한국을 제외한 NIEs(특히 대만)—아세안 연합체와 한국과의 경쟁이라는 구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²⁾

1) 현지조사 기간은 대만(1994년 5월 18일~28일), 한국(同年 7월 4일~14일)이며, 조사대상은 전자산업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식품, 타이어, 유리, 약품산업에 있어서 일본, 미국, 유럽의 다국적기업이었다(전체 34社, 일본 25, 구미 9). 각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拙稿 [12], [13] 참조.

2) 대만 이외에 홍콩, 싱가포르 거점은 주로 가격품의 설계, 지역통괄(OHQ: Operational Head-Quarter) 및 국제조달(IPO: 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배급거점(CDC: Central Distribution Center)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日本長銀總合研究所 [26], [27]를 참조. 한편 일본—한국을 제외한 NIEs—아세안 연합체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유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기본적으로는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출시장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합 정도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세안에서 생산되는 민생용기기는 거의 다 현지 진출한 일본기업에 의한 것이며, 아세안제품에 구축되어 우리 나라 제품의 수출시장점유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

여기서 대만이 한국보다 외자계기업(특히 일본)의 생산점유율이 압도적으로 크고 대만에 여전히 일본기업의 직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아세안·중국에 대한 부품공급기지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지금의 민생용기기를 둘러싼 국제경쟁상황은 일본—한국을 제외한 NIEs(특히 대만)—아세안 연합체와 한국과의 경쟁이라는 구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만에 있어서 외자계기업(특히 일본기업)이 생산점유율과 기업 지배력(control power) 측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크며, 급속히 아세안·중국에 대한 부품공급기지로서의 성격을 강화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현재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경쟁조건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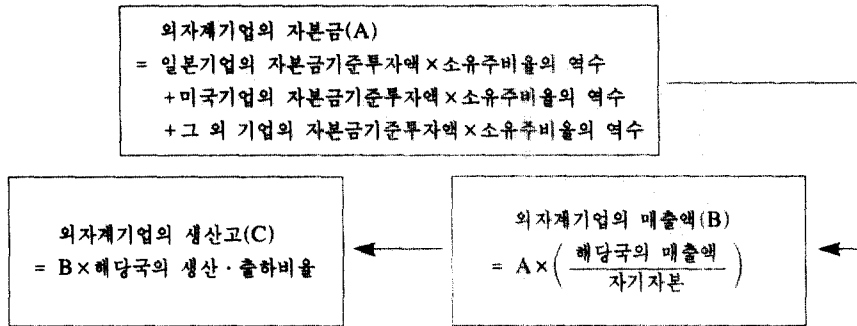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 추계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Ⅲ장에서는 한국·대만 전자산업에서 외자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일본 전자기업에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과 대만 거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전자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감도를 그려 나가고자 한다.

Ⅱ.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의 추계

우리 나라가 대만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작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岩本卓也 [22], 徐照彦 [30]).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 그리고 기업지배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AV機器(SITC76기준, 유·무선전화기 포함)를 예로 들면, 1988~1993년간 美國 AV기기 시장에서 일본, 한국, 대만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6→34%, 10→7%, 10→4%로 하락한 반면, 말레이시아의 시장점유율은 2→11%로 크게 증가했다(OECD [8]). 말레이시아 전자제품의 생산, 수출 확대는 거의 일본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92년 말 현재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액 19.3억 달러는 총 외자의 56%(대만 16%, 싱가포르 9%)에 달하며(MIDA [7]), 특히 AV기기 분야에 있어서 일본계기업의 생산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된다. 1993년 단계에 있어서의 CTV, VTR, 오디오 생산에 있어서 일본계 기업의 생산점유율은 각각 87%, 100%, 75%에 달한다(日本電子機械工業會 [29]).

〈그림 1〉 한국·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외자계기업의 생산액추계



- 자료 : 1. 일본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은 日本電子機械工業會 [28] 참조.
 2. 일본, 미국, '그 외'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인가누계액 : 한국은 재무부의 외국인투자기업명부로부터 산출(전자산업의 대상기업 317개사). 대만은 臺灣研究所 [34] 참조.
 3. 생산효율(매출액/자기자본)은 한국은행 [2](대만의 原자료는 臺灣銀行 [37]) 참조.
 4. 전자산업생산액 및 생산출하비율(생산액/출하액)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4], 臺灣經濟部統計處 [35].
 5.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서 외자쪽 소유주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대만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했음.
 6. 대만의 생산출하비율은 대만전자산업의 주요제품(70품목)의 同 비율임.

한국재무부·산업은행 [3]에서는 외자계기업의 한계자본생산성에,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자본재 도입액을 곱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부가가치생산에 미치는 기여도를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이 방법을 응용하기에는 외자계기업의 한계자본생산성 및 자본재도입액에 대한 폭넓은 실태조사를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高梨和紡 [10]은 한국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일본계기업의 자본금을 산출하고, 몇 가지 가정하에서 일본계기업의 부가가치생산액을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본계기업의 투자잔액 = 자본금 = 총고정자본형성액이 계산의 전제조건으로 되고 있어 자본금(자기자본)과 투자가능자본(총자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와의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⁴⁾

4) 高梨和紡 [10]가 행한 한국 섬유산업에 있어서 일본계기업의 부가가치생산액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東洋經濟新報社의 『海外企業進出總覽』을 이용하여 일본계기업의 자본금(투자잔액)을 산출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부가가치생산액을 추정한다. ① 일본계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기계장비 부문으로의 투자비율은 한국 섬유산업 평균과 동일하다. ② 일본계기업에 있어서 기계장비의 생산효율(부가가치/기계장비)은 일본 섬유산업 평균과 동일하다. ③ 기계장비의 가동률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자본금 100억 원을 기준으로 대형투자자 소형투자자로 구분한 후, 대형투자자의 가동률은 투자 1년째 10%, 2년째 50%, 3년째 100%로 증가한다. 반대로 철수시는 철수 3년 전에 50%, 2년 전 20%, 1년 전 10%로 하락한다. 소형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1년째 60%, 2년째 80%, 3년째 100%로 증가하며, 철수시는 대형투자자와 같은 비율로 하락한다.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일본계기업의 부가가치액은 (부가가치액 / 기계장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과 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외자계기업의 생산액을 추계하기로 한다(〈그림 1〉참조).

1) 계산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은, 외자계기업의 자본금이다

자본금과 총자본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현재 숲 외자계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자계기업의 ① 자금조달구조(자기자본비율), ② 생산효율(매출액/자기자본), ③ 생산출하비율(생산액/출하액)은 각각 진출한 나라의 전자산업 평균과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생산액을 추계한다.

$$\begin{aligned} & \text{외자계기업의 생산액} \\ & = \text{외자계기업의 매출액} \times \text{해당국 전자산업의 생산출하비율} \\ \\ & \text{외자계기업의 매출액} \\ & = \text{외자계기업의 자본금} \times \text{해당국 전자산업의 생산효율} \end{aligned}$$

2) 전체 외자계기업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① 日本電子機械工業會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대만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소유주비율로 조정)을 산출한다(대상기업 : 한국 61사, 대만 80사).
- ② 일본기업의 투자실행률(실행액/인가액)과 철수율(철수액/인가액)은 외자계기업 전체 평균과 같다는 가정하에, 미국 또는 '그 외' 국적을 가진 외자계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을 각기 산출한다.

$$\begin{aligned} & \left(\frac{\text{일본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text{인가누계액}} \right) = \left(\frac{\text{미국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text{인가누계액}} \right) \\ & = \left(\frac{\text{'그 외' 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text{인가누계액}} \right) \end{aligned}$$

- ③ 각국의 자본금기준투자액에 각각 소유주비율의 逆數를 곱해 전체 외자계기업의 자본금을 구한다.

$$\begin{aligned} & \text{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자본금} \\ & = \text{일본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 \times \text{일본기업의 소유주비율 역수} \\ & \quad + \text{미국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 \times \text{미국기업의 소유주비율 역수} \\ & \quad + \text{'그 외' 기업의 자본금기준투자액} \times \text{'그 외' 기업의 소유주비율 역수} \end{aligned}$$

비)×(기계장비/투자잔액)×투자잔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1975~1988년간 한국 섬유산업에 있어서 일본계기업의 부가가치생산점유율은 천연섬유 60→5%, 화학섬유 90→20%로 저하했다고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생산액 추계결과는 그것 자체로서 외자쪽의 기업지배력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주식분산 여하에 따라서는 실제 투자된 액수보다 선진다국적기업쪽에 더 많은 기업지배력이 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 취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채권보유에 한하여 해외직접투자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직접투자의 목적이 기업경영에 대한 實質的인 발언권(지배력) 확보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10%라는 기준은 무척 애매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과반수소유라 할지라도 외자쪽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으며, 10% 미만 일지라도 해당국의 주식분산 여하에 따라서는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과 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주요기업(상위 30사)의 주식소유 상황등을 고려한 기업지배력 측면도 아울러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Ⅲ. 한국·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외자의 비중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과 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의 누계액, 투자건수, 건당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대만이 한국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1992년 말 현재 대만에 대한 투자누계액은 40.3억 달러로서 한국의 약 3.3배, 투자건수 및 건당 투자액도 한국의 약 1.8배에 달하고 있다.

일본기업과 歐美기업 간에는 한국, 대만 구별 없이 그 중점 투자분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歐美기업이 반도체, 컴퓨터, 전자부품(브라운관) 등에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일본기업은 가전, 중전기, 일반수동부품(저항기, 콘덴서) 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재경원의 외국인투자명부를 근거로 주요 외자계기업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일본기업의 상위 20사 중 반도체, 컴퓨터 관련기업은 5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각종 수동부품과 음향기기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기업은 상위 20사 중 12사가 반도체, 컴퓨터 관련 투자이다. 대만에 있어서도 상위 20사의 생산품목을 살펴

5) 선진다국적기업측이 소액주주일지라도 기술 및 기계, 원료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진다국적기업측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데, 丹野勳 [15], [16]는 이것을 대만에 진출한 일본계기업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주식소유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대주주(관계법인·개인)의 국적을 가지고 기업지배력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표 1〉 한국·대만 전자산업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인가기준)

(단위 : 백만 달러)

한국								
한국	투자액	전체	26.4	55.3	95.6	27.2	1,213.1	100
		일본	16.8	3.9	52.4	2.9	569.0	47
		미국	9.1	50.0	12.3	21.8	497.1	41
	투자건수	전체	7.1	14.6	57.0	22.0	495.0	100
		일본	6.1	6.8	33.8	12.5	321.0	65
		미국	0.8	6.8	13.5	7.5	120.0	24
	전당투자액	전체	3.7	3.8	1.7	1.2	2.5	
		일본	2.8	0.6	1.6	0.2	1.8	
		미국	11.1	7.4	0.9	2.9	4.1	
대만								
대만	투자액	전체	31.2	146.3	309.4	423.5	4,028.6	100
		일본	7.3	21.7	112.8	125.2	1,133.7	28
		미국	15.9	83.1	120.7	180.9	1,833.8	46
		화교	0.8	3.6	8.6	18.0	127.9	3
	투자건수	전체	14.5	27.0	55.5	43.3	896.0	100
		일본	6.8	3.8	24.0	7.7	339.0	38
		미국	3.1	11.5	16.0	16.3	253.0	28
		화교	3.3	5.8	7.5	6.3	170.0	19
	전당투자액	전체	2.1	5.4	5.6	9.8	4.5	
		일본	1.1	5.8	4.7	16.3	3.3	
		미국	5.1	7.2	7.5	11.1	7.2	
		화교	0.3	0.6	1.1	2.8	0.8	

주 : 1) 한국의 통계는 1994년 8월 단계의 재경원 외자계기업명부(미발표자료, 총317社)의 인가액과 인가년을 기준으로 추계했음. 그 때 철수한 기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외자 전체의 撤收率은 일본기업의 철수율과 같다는 가정하에 1992년도까지의 일본 전자산업의 對한국 투자인가 누계액(555.6백만 달러, 日本大藏省 통계)를 同시기 우리 나라 재경원 외자계 기업명부 기준의 인가누계액(503.1백만 달러)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전체를 조정했음.

2) 투자건수도 투자금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했음.

자료: 한국은 재경원의 외자계기업명부 및 日本大藏省 [24], 대만은 臺灣研究所 [34] 참조.

〈표 2〉 진출외자의 종점투자 분야(1992년 현재)

한 국	일본(상위 20사)	15	5	0
	미국(상위 20사)	7	12	1
대 만	일본(상위 12사)	12	0	0
	구미(상위 7사)	14	3	0

주 : 상위 20사의 기준은 소유주비를 조정 후의 투자금액임.

자료 : 한국재경원의 외국인투자명부, 日本電子機械工業會 [28], 中華僑信所 [38], 東洋經濟新報社 [17], [18].

보면, 일본기업 12사 중 민생용기기 및 중전기 분야의 생산이 9사, 전자부품이 3사이며, 歐美기업은 쉰 7사 중 반도체가 2사, 통신기기 생산이 2사로 나타나고 있다(나머지는 브라운관, PCB생산 등이다. 〈표 2〉 참조).⁶⁾

둘째로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누계액의 격차를 반영하여 대만에 있어서의 외자계 기업의 생산점유율은 한국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외자계기업의 생산 점유율은 한국이 20.3%인데 반해 대만은 52.2%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소유주비율 조정 후의 투자액)의 생산점유율도 한국 7.0%, 대만 18.2%로서 대만에 있어서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이 한국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셋째로 선진다국적기업의 기업지배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주요기업(매출액순위 30위까지)의 주식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 지배력 측면에서의 自國資本과 外資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4〉와 〈표 5〉이다.

상위 30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자계기업의 비율은 한국이 8%인데 반해 대만은 40%에 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상위기업으로 갈수록 외자계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상위 10사 중 외자계기업의 매출비중은 한국 0%, 대만은 42%).

6) 이러한 사실은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일본기업의 그것보다 더 첨단산업에 경도되어 있다는 제반 연구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지하게 된다. 小島滿 [19], [20]은 다국적기업의 투자행동을, '日本型=貿易再編成指向型', '美國型=逆貿易指向型'으로 분류하고, 일본형이 미국형에 비해 투자 한 건당의 규모가 작으며, 일본국내의 潛在的 비교열위산업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직접투자를 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Lee [6]와 Chou [5]는 이러한 小島滿 이론을 한국과 대만에 적용시켜, 미국기업의 자회사가 일본기업의 자회사보다 더 첨단산업분야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한편 일본기업보다 歐美기업이 건당 투자규모가 크고 완전소유 또는 과반수 이상 소유를 선호한다는 것(小島滿 [21], 龜井正義 [11])은 한국·대만 전자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건당 투자액의 국가별 비교는 〈표 1〉 참조). 재경원 외자계기업 명부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구성을 분석해 보면 100% 외자계기업이 % 외자계기업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34%, 유럽 26%이나 일본은 13%에 불과하다. 외자쪽 소유가 과반수 이상인 기업비율도 미국 58%, 유럽 48%, 일본 27%로 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臺灣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36]).

〈표 3〉 한국·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한국			
외자계기업의 생산액			
A (외자계기업의 생산액)		6,453	6,714
B (외자측의 소유주비율 조정후 생산액)		2,241	2,330
전자산업 전체의 생산액(C)		29,363	33,080
생산점유율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A/C)		22.0%	20.3%
외자의 생산점유율(B/C)		7.6%	7.0%
대만			
외자계기업의 생산액			
A (외자계기업의 생산액)		13,776	12,141
B (외자측의 소유주비율 조정후 생산액)		4,813	4,241
전자산업 전체의 생산액(C)		19,181	23,251
생산점유율			
외자계기업의 생산점유율(A/C)		71.8%	52.2%
외자의 생산점유율(B/C)		25.1%	18.2%

〈표 4〉 한국·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상위 30社 國籍(1992년)

(단위 : 백만 달러)

기업규모								
1~10위	21,131	-	0%	3,706	2,640	-	42%	
11~20위	2,614	1,248	32%	799	1,607	253	60%	
21~30위	1,271	791	38%	1,748	186	231	9%	
전 체	25,016	2,040	8%	6,253	4,433	484	40%	

주 : 자료는 〈표 5〉 참조.

〈표 5〉 한국·대만 전자산업에 있어서 상위 30社 國籍(1992년)

(단위 : 백만 달러)

1	삼성전자	7,741	자국	종합가전, 반도체, 컴퓨터	大同	1,302	일본	Toshiba 5% 소유, 종합가전
2	금성사	4,805	자국	종합가전	臺灣松下	870	외국	Maatsuisa 56% 소유, 종합가전
3	대우전자	1,342	자국	종합가전	Philips Elec. Indu.	670	외국	Philips 100%, 브라운관
4	현대전자산업	1,282	자국	반도체, 컴퓨터	Philips Elec. Indu.	634	외국	Philips 100%, 전자부품
5	삼성전선	1,058	자국	NEC 10% 소유, 브라운관 생산	中華映管	631	자국	브라운관
6	금성전선	766	자국	Hitachi 12.9% 소유	太平洋電線	484	자국	日 電子電氣 1.1% 소유, 전선
7	삼성전기	758	자국	전자부품(VHF, UHF, DY 등)	Acer	481	자국	컴퓨터
8	금성에프트론	611	자국	반도체	東元	468	자국	중전
9	아남산업	576	자국	반도체	聲寶	466	외국	Sharp 8.16% 최대주주
10	대한전선	514	자국	전선	First Inter. Com.	339	자국	컴퓨터
11	우터온전기	512	자국	Toshiba 0.95% 소유, 가전제품	Motorola Taiwan	323	외국	Motorola 100%, 반도체, 통신기
12	삼성코닝	483	외국	Corning 50%, 삼성 50%, 브라운관용 유리	Cal-Comp	290	자국	제산기, 복사밀리
13	대우통신	417	자국	컴퓨터, 통신기기	士林	263	외국	Mitsubishi 24.18% 최대주주, 가전, 중전
14	모토롤라	349	외국	Motorola 100%, 반도체제조	Simens Tele.	262	외국	Philips 40%, 반도체
15	금성정보통신	327	자국	AT&T 44%, 금성 54%, 전자교환기	Taiwan Semicon.	256	자국	반도체
16	현대중전기	318	자국	산업용전기(발전기 등)	聯群電子	254	자국	반도체
17	한국전자	316	자국	Toshiba 4.8% 소유, 반도체 · LCD제조	臺灣日立	253	외국	Hitachi 61.5%, 공기정화장치
18	금성계전	287	자국	Huazisu 29.52% 통, 소유한 최대주주	臺灣電子	253	N.A.	전자부품
19	삼보컴퓨터	266	자국	Seikoepson 8.2% 소유, 컴퓨터	臺灣國際標準電子	251	외국	·
20	금성통신	260	자국	Simens 10.69% 컴퓨터주변기기	新力	248	자국	가전
21	아남전자	230	자국	반도체	Chunxun Electro.	246	자국	· 컴퓨터
22	인텔	222	자국	음향기기생산	Datasec Electro.	240	자국	· 컴퓨터
23	금성알프스전자	202	외국	Alipse전기 50%, 금성 50%, 통신기기 · 부품	Inventa Electro.	231	N.A.	·
24	맥슨전자	198	외국	무선전화 등	ADI Corp.	226	자국	컴퓨터
25	한국중앙통신공업	192	외국	Sony 100%, 음향기기	臺灣三洋	213	외국	Sanyo 48.13% 최대주주
26	삼성HP	174	자국	HP 50%, 컴퓨터주변기기	Acer Periphe.	204	자국	컴퓨터주변기기
27	국해전선	162	자국	음향기기	永大機電	200	자국	엘리베이터 등
28	해해전자	157	자국	음향기기	Ehtegrup Com.	198	자국	· 컴퓨터
29	한국시그네틱스	157	자국	Signetics 100% 소유, 반도체	MAG Technology	186	자국	· 컴퓨터
30	태일경밀		자국	자기헤드, 프린트 등				

주 : 자국자본과 외자의 구분기준은 최대주주(관계법인·개인)의 국적임.

자료 : 한국은 한국능률협회 [1], 대만은 中華徵信所 [38], 兼洋經濟新聞社 [18]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日本經濟新聞社 [23], Stapford [9]로 보충함.

IV. 일본전자기업에 있어서 한국·대만 거점의 차이

이상과 같이 전체투자액, 생산점유율, 기업지배력 측면에서 대만은 한국보다 월등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생용기기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의 지배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민생용기기를 둘러싼 국제경쟁 상황이 단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아세안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일본-한국을 제외한 NIEs-아세안의 연합체와 한국과의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본전자기업의 국제분업과정에 있어서 한국거점과 대만거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사실은 현재 일본전자산업의 대 한국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대만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1987~1989년, 1990~1992년, 1993~1994년을 비교해 보면, 일본전자산업의 한국투자액이 연평균 81→18→13백만 달러로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비해 대만투자는 76→49→57백만 달러로 여전히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⁷⁾ 두 나라 모두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임금 및 지가상승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투자액추세의 차이점이 단지 생산비 요인만으로 귀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대만 거점은 국내생산비 상승과 아세안·중국 거점의 발전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생산품목의 고도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日立製作所는 중국에 컬러 TV의 생산거점을 확대시킴에 따라 대만의 기존거점(臺灣日立電視)에서의 컬러 TV 생산을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으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컴퓨터용 모니터 생산으로 그 주력 생산제품을 전환시켜가고 있다. Sony와 Epson의 대만거점도 지금까지의 VTR 생산을 MDP 생산으로, 또한 소형 LCD 생산을 중형 LCD 생산으로 주력 생산품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Rohm은 기존 LED 생산이 말레이시아 Rohm에 집약됨에 따라 Monolithic IC, 디지털 트랜지스터, 소형저항기 등의 생산비중을 점차 확대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몇 가지 사례들은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거하여 앞으로 한국·대만 거점이 추진해 나갈 방향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양국거점의 차이점을 비교검토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속에 한국과 대만 거점이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日本電子機械工業會의 「海外法人リスト」를 이용하여 두 나

7) 日本大藏省 [24], 1995. 12.

〈표 6〉 일본 전자기업의 한국·대만 거점의 성격

(단위 : 백만 달러)

한국									
민생용·산업용	15	25%	182.3	12.2	138.2	9.2	32%	61%	7%
부품전문	46	75%	185.4	4.0	135.8	3.0	71%	19%	11%
전체	61	100%	367.6	6.0	274.0	4.5	53%	38%	10%
한국									
민생용·산업용	28	31%	590.2	21.1	288.3	10.3	41%	16%	43%
부품전문	62	69%	448.2	7.5	395.2	6.6	44%	17%	40%
전체	90	100%	1038.4	11.8	683.5	7.8	43%	17%	41%

- 주 : 1) 각 기업 모두 자본금액에 비례하여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함.
 2) 투자비율조정후 자본금액은 각 기업의 자본금×소유비율임.
 3) 민생용·산업용기기 기업은 同계품을 생산하면서 부품생산도 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함.
 4) 계산대상의 기업수는 다음과 같음. 자본금 및 소유비율(그리고 지역별 판매비율)이 파악 가능한 기업은 한국의 민생용·산업용기기 분야에서는 15(12)개, 전자부품기업에서는 46(35)개, 대만의 민생용·산업용기기 분야에서는 28(14)개, 전자부품기업에서는 60(49)개임.

자료 : 日本電子機械工業會 [28].

라에서 일본계 기업의 현지판매·수출상황을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일본계 기업을 전자기기의 최종조립생산기업과 전자부품 전문기업으로 나누고 두 그룹 사이의 판매구성을 비교해 보면 흥미있는 대조점이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대만 거점이 한국거점보다 수출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한 가운데, 특히 한국에 있어서 전자부품 전문기업은 한국시장에 대해, 그리고 최종조립제품 생산기업은 일본시장에 대해 의존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거점은 부문간 격차가 거의 보여지지 않으며 전체적으로는 일본시장보다는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전자산업에 있어서 최종조립생산기업은 재벌계 한국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진출한 일본계기업은 일본으로의 수출생산거점으로서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대만의 경우에는 同 분야에서 주요기업을 일본계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시장으로의 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그러나 전자부품 전문기업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한국기업이 최종조립품 생산을 한국자본에 의해 점유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생산을 자본합작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계 부품 전문기업의 국내 판매비율은 71%로서 대만의 44%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⁸⁾

8) 한국이 대만에 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산업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92년 현재 전자산업의 상위 60사 평균매출액 규모는 한국이 5.1억 달러로

〈표 7〉 일본 전자산업 해외현지법인의 판매처

(단위 : %)

1980	아시아	51.6	16.2	32.1	43.6	31.8	13.7
1986	아시아	42.5	22.5	35.3	33.1	43.1	19.8
	아세안	43.0	7.4	49.6	17.1	67.7	13.9
1989	아시아	37.4	26.9	35.7	37.3	46.8	12.0
	NIEs	37.1	30.4	32.6	39.6	42.3	13.2
	아세안	34.9	17.5	47.6	30.7	61.6	7.4
1992	아시아	45.7	27.7	27.1	19.6	70.1	9.2
	NIEs	52.2	24.7	23.0	13.0	73.9	10.4
	아세안	38.4	27.7	33.9	25.4	66.1	6.5

資料 : 通産省産業政策局 [33].

이상의 분석결과는 대만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특히 부품전문기업에 있어서 제3국에 대한 수출생산거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여기서 제3국이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는 남게 되는데 현단계에서 한국 및 대만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구체적인 판매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日本通産省의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를 근거로 제3국시장의 구체적인 지역명을 추측해 보면 바로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일본기업의 NIEs거점에서 제3국시장으로 판매되는 물품 중 73.9%가 아시아 역내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대만거점이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판매비율에 있어서 한국거점보다 무척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만거점이 아시아 역내시장(그 중점 지역은 중국 및 아세안)과의 일본기업의 분업구조 속에 더 적극적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표 6〉 참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일본전자산업의 대만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는데 반해 한국투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만거점이 한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92년 현재 전자산업의 상위 60사 평균매출액 규모는 한국이 5.1억 달러로서 대만 2.6억 달러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전자산업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기업에 있어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기업별 매출액의 變動係數(표준편차/평균)를 계산해 보면 한국이 2.27로서 대만 0.77(일본은 1.77)에 비해 무척 크게 나타난다. 한편 동일자본의 지배에 의한 개별기업의 집산화 정도도 한국이 대만보다 월등히 진행되고 있어, 상위 20사의 소속기업그룹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삼성, 현대, LG, 대우의 4대재벌이 상위 15사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대만에서는 대만大同그룹이 2사, 네덜란드 Philips가 3사, 일본 三菱가 2사를 소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개별 독립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 拙稿 [14] 참조.

국거점보다 아시아 역내시장에 대한 판매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결국 아세안·중국에 대한 전자부품·부분품 공급기지로서 대만거점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한국거점은 일본기업의 분업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어 투자의 감소가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 론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일본전자기업의 해외진출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기존 일본기업의 분업 네트워크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전체의 투자 및 생산계획을 총괄함과 동시에 주요기술, 부품, 자본재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거점은 지역통괄본부, 저가품의 설계거점, 역내 조달 및 배급거점으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대만은 부품 공급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더해 갔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아세안은 최종생산품의 조립수출기지로서 확대되어 갔다.

한편, 한국거점은 이상과 같은 일본 전자산업의 東아시아 분업구조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귀결되게 된다.

이러한 일본 전자기업의 국제분업 네트워크의 형성은 특히 민생용기기 분야에 있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경쟁구도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아세안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일본—한국을 제외한 NIEs—아세안의 연합체와 한국과의 경쟁이라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도하에서 현재 우리 나라 민생용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 헌 ◆

1.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3000대기업』, 1993.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4.
3. 한국재무부·산업은행, 『한국의자도입 30년사』, 1993.
4.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기전자공업통계』, 각년판.
5. Chou, T. C., American and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Taiwan : A Comparative Study,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29, 1988.
6. Lee, C. H., *International Produ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 A Comparative Stud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9, 1983.

7. MIDA, *Statistics on the Manufacturing Sector*, 1988~1992, 1994.
8.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1993.
9. Stapford, J. M., *Directory of Multinational*, Macmilian Publishers, 1992.
10. 高梨和紡, “韓國纖維・縫製産業における日系合併企業 : 1970~1985”, 大山道廣・高梨和紡編, 『東アジアの國際交流と經濟發展』, 文眞堂, 1993.
11. 龜井正義, 『多國籍企業の經營行動』, ミネルヴァ書房, 1991.
12. 金鍾杰, “新しい戰略的提携の可能性—臺灣”, 長銀總合研究所, 「總研展望」, 1994. 10.
13. ———, 「日美歐多國籍企業の東アジア戰略(韓國・臺灣編)」, 長銀總合研究所, 總研調查 시리즈, 57, 1995.
14. ———, “電氣電子産業發達における韓國的特徴—重化學工業化政策期の韓國電氣電子産業”, 慶應義塾大學, 「三田學會雜誌」, 88(4), 1996. 1.
15. 丹野勳, “臺灣日系企業の組織, 人事, 親會社統制について—臺灣日系實態調査から”, 「組織科學」, 20(1), 1986.
16. ———, “多國籍企業の組織”, 柴川林也編, 『企業經營の國際化戰略』, 同文館, 1987.
17. 東洋經濟新報社, 『海外進出企業總覽』, 各年版.
18. ———, 『アジア會社四季報』, 1993.
19. 小島清, “海外直接投資の理論—アメリカ型と日本型—”, 一橋大學, 「一橋論叢」, 1971. 6.
20. ———, “海外直接投資の新形態”, 一橋大學, 「一橋論叢」, 1971. 8.
21. ———, 『海外直接投資論』, ダイヤモンド社, 1976.
22. 岩本卓也, “韓國及び臺灣經濟の比較分析”, 「外務省調査月報」, 1, 1993.
23. 日本經濟新聞社, 『世界企業ダイレクトリ-(93/94年, アジア編)』, 1994.
24. 日本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各月版.
25. 日本長銀總合研究所, 「日本の製造業の國際分業化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社團法人 海外事業協力協會との共同調査, 1994.
26. ———, 「日米歐多國籍企業の東アジア戰略(總論・シンガポール)」, 總研調查 44, 1995.
27. ———, 「日米歐多國籍企業の東アジア戰略(タイ・マレーシア)」, 總研調查 45, 1995.
28. 日本電子機械工業會, 『海外法人リスト』, 1991, 1993.
29. ———, 『海外電子工業の動向調査團報告書—東南アジア, 中國, 歐洲』, 1993.
30. 徐照彦, 『土着と近代のニックス・アセアン』, お茶の水書房, 1987.

31. 青木健, 『アジア太平洋經濟圏の生成』, 中央經濟社, 1994.
32. 通産省産業政策局, 『わが國企業の海外事業活動』, 各年版.
33. —————,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1, 3, 4, 5回調査, 1981, 1987, 1990, 1993.
34. 臺灣研究所, 『臺灣總覽』, 各年版.
35. 臺灣經濟部統計處, 『工業生產統計月報』, 各月版.
36. 臺灣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華僑外國人投資企業運營狀況調查』, 1985.
37. 臺灣銀行, 『中華民國臺灣地區工業財務狀況調查』, 各年版.
38. 中華徵信所, 『臺灣地區大型企業排名』, 1993.